

일본 스미토모 상사가 독점 공급하는 “아솔루토”

상품에 걸맞게 원면부터 엄선

◎ 고급면사에 걸 맞는 최상급 원면으로 생산

일본에서 손꼽히는 종합무역상사 중의 하나인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는 이탈리아의 방적기업인 “레냐아노·틴티(Legnano Tinti)”사(社)와 제직 및 환편(環編)용 고급 면사인 “아솔루토”를 일본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회사들이 공공연하게 컴팩트·얀 시장에 들어선 것과는 다르게, 스미토모상사는 재작년(2000년) 가을부터 물 밑 작업으로 컴팩트·얀의 수입을 추진하였다. 상사내의 섬유원료부에는 면화 및 면사에 대한 베테랑이 모두 있어, 이 장점을 최대한으로 잘 살려, 최종 제품에 알맞게 면화부터 세심하게 선정한 것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처럼 좋은 원료를 선정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브랜드(brand)가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섬유원료부의 힘이 한군데로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상사 내 다른 관련 부서의 횡적(橫的)인 지원과 어패럴이나 소매 업자와의 종적(縱的)인 도움이 서로 어우러져 종합적인 힘을 발휘하며 시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면화, 면사 및 면직물을 모두 취급하는 섬유원료부에 의하면 “벌키(bulky)한 태를 내기 위해서는 수피마 면(Supima cotton)을, 실키(silky)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집트 면이나 인도 최상급 면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자의 힘이 하나로 잘 뭉쳐진 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다. 컴팩트·얀처럼 각 아이템에 알맞게 면화를 엄선함으로써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원료가 되는 면화의 경우, 초장섬유면(超長纖維綿)으로서는 이집트산의 기자(Giza) 70이나 미국산의 수피마 면, 인도산 DCH 등이 있으며, 장섬유 면으로는 기자 86, 인도산 MCU 등이 있는데, 어느 면화를 어떻게 가려서 쓸 것인지는 최종 제품의 만듦새를 가장 중요시하여 수입선(輸入先)인 이탈리아나 인도 방적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품질에 관한 한 스미토모상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컴팩트·얀의 특출한 장점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스미토모상사가 2000년 9월부터 이탈리아의 방적회사 “레냐아노”사로부터 수입한 컴팩트·얀은 “아솔루토(Assoluto)”라는 꼬리표를 제품에 부착해 일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아솔루토”는 영어의 “앱솔루트(absolute)”와 같은 뜻의 이탈리아어로서 “둘도 없는 차별화된 고급면사”를 의미한다.

제직용과 횡편용으로 일본에서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는 “아솔루토” 면사는 셔츠감, 이불잇, 스웨터 등의 용도로 전개되고 있는데, 드레스·셔츠 감은 닛신보와 이불잇은 다이와보 등과도 제휴하여 판매하고 있다.

상사측에서는 “아솔루토”는 양(量)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하는 둘도 없는 소재로서 어디까지나 그 가치를 높여 대형소재(大型素材)화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 전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을 한 상품에 담아

원면부터 염선해 만든 면사로 최종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전략이 종합상사인 스미토모상사가 컴팩트·얀에서 보여주는 “총 화합된 힘”의 일부이다. 원면과 면사를 한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얻는 메리트(merit)를 충분히 활용하고, 도쿄와 오사카의 섬유본부 제품담당 그룹들을 수평방향의 축(軸)으로, 이 면사의 고객인 어패럴 기업 및 소매상과의 수직적(垂直的)인

축으로 하는 전사적인 “총 화합된 힘”을 “아슬루토”라는 하나의 상품에 담아내는 전략이다.

“아슬루토”로 만들어진 상품은 2002년 가을·겨울철부터 소매점의 판매대에 진열 될 것이다. 어패럴 생산이나 소매는 “레나운(Renown)”이나 “니시토모(西友)” 등과 같은 이름 난 기업들과의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레나운”과의 조정이 끝나면 2002년 가을·겨울철 상품부터 시작하여 2003년 봄·여름 상품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할 계획이며, “레나운”의 새로운 브랜드인 “심플·라이프(Simple Life)”의 주력 소재(主力素材)로서 컴팩트·얀이 채택될 예정이다. “레나운”과 가네보 섬유와는 상하이에 있는 방직, 편성, 염색, 봉제까지를 일괄 생산할 수 있는 합판회사 “상하이·화종레나운·니트(上海華鐘)”를 활용하여 제품생산 및 공급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니시토모와는 2002년 가을·겨울 상품부터 자체 브랜드 “웨스트·윈(West·Win)”으로 부인용 셔츠, 팬츠, 컷소(cut·sew)상품으로의 전개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한다.

◎ 인도 등의 차별화 고급 면사도 수입

스미토모상사가 수입하고 있는 “아슬루토”외에도 인도가 중요 수입 대상국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레냐아노사는 컴팩트·얀 정방기 55,000추로 50수 150수로 폭넓게 면사를 스미토모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인도로부터는 4개사 도합 18,000추로 20수, 30수, 40수, 50수, 60수, 80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으로부터는 3,000추 규모로 20수를 시험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한 컴팩트·얀은 아직 브랜드가 없지만, 머지않아 브랜드 상품으로서 판매될 것이다.